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5. 9(목) / 총 5매(본문5)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	담 당 자	• 단장 김규철, 팀장 김승범, 사무관 김수현, 하태아, 김영지 • ☎ (044) 201-4441, 4526, 4515
	주택정책과		• 과장 이명섭, 서기관 문희선 • ☎ (044)201-3318
	부동산개발정책과		• 과장 오성익, 사무관 고경표 • ☎ (044)201-3438
	철도투자개발과		• 과장 나진항, 서기관 이광민 • ☎ (044)201-3928
	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		• 과장 이우제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최규열 • ☎ (044)201-5102, 5101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3기 신도시는 인근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- 기존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교통대책 등도 적극 추진 -

< 신규택지 **보안을 지키기 위해** 지자체 **협의 완료 즉시 발표** >

-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0만호 공급계획 발표('18.9.13) 후 작년에 19만호 입지를 확정하고 나머지 11만호는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기로 밝힌바 있습니다.
- 이를 위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신도시 교통대책, 개발구상 등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, 관계부처 협의를 5월초 완료하였습니다.
 - 협의과정 등에서 전문가, 관계부처, 지방자치단체 등 200여명이 정보를 취득하였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룰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5.7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
- '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(입주)도 충분한 상황에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30만호 입지를 확정함으로써, '23년 이후에도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.

< 신도시는 **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**로 조성 >

- 신도시는 지하철 신설, Super-BRT 등 교통대책을 기존 보다 2년 **빨리 마련***하였고 입주 시 불편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.

* (기존) 지구계획 수립 단계 → (개선) 지구지정 제안 단계

- **고양창릉 지하철 신설**(가칭, '고양선*') 및 **서부선**** 직결을 통해 창릉지구 입주 예정자뿐만 아니라 일산 등 기존 주민들의 여의도 등 서울 서부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입니다.

* 향동지구역, 지구 내 3곳, 화정지구역, 대곡역, 고양시청역 등 7개 역 신설

** 서부선 : 서울대~노량진역~여의도~신촌~새절역까지 계획(서울 도시철도망구축계획)

- **고양선은** 창릉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**'28년 개통** 예정인 서부선 보다 **빨리 개통** 할 계획이며, 이용 수요에 맞춰 서부선 운행 시격 단축방안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.

- **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도로** (4.8km) 등을 통해 자유로 이용차량도 분산될 것이며, 일산 등의 추가적인 교통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- **부천대장 S-BRT**는 전용차로, 입체 교차로를 통해 정지 없이 운행, 지하철역 직결 등이 적용되어 **지하철만큼 빨리** 운행됩니다.

① 스마트정류장	② BRT 전용차로	③ 입체화(지하차도)	④ 지하철역 직결	⑤ 수소·자율주행버스
				

- 참고로, 고양선, S-BRT,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등은 100% 광역교통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.

- 이번에 발표한 교통대책 이외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GTX 등 기존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- GTX A 노선은 작년 말 착공식 이후 '23년 개통 목표로 전 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, 금융약정 체결('19.3월)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.
- GTX C 노선은 '18.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6월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'21년 말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GTX B 노선은 '19.2월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하였으며,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후속절차에 착수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을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.

□ 편리한 교통과 함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신도시 개발 원칙입니다.

- 기업 유치 등을 위해 고양창릉은 가용면적 대비 40%, 부천대장은 39% 등 기존 보다 2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으며,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해 기업지원허브, 창업지원주택도 공급할 계획입니다.
- 신도시에 충분한 자족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신도시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상향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
< 서울에 4만호 공급, 입지 좋은 신도시로 주택시장 안정 공고화 >

□ 서울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4만호 공급과 함께 용적률 상향,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확대 등 제도개선*을 통해서도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입니다.

* (용적률 상향) 상업·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상향분의 50%를 공공주택 공급 (역세권 범위확대) 승강장 경계 250→350m, 대중교통 중심 역→모든 역

- 또한, 서울시는 작년에 8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'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한 곳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도 꼼꼼히 마련하고 서울에 집중된 기업이전 유도 등을 위해 자족용지도 충분히 확보하였기 때문에 서울 주택수요 흡수에 효과가 클 것입니다.

○ 일부에서 3기 신도시로 인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, 3기 신도시의 분양은 '22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며,

- 3기 신도시 조성으로 2기 신도시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, 자족시설이 확충되어 2기, 3기 신도시가 상생발전하고,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.

<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 >

□ 의왕청계2 등 1차 발표지구는 주민 설명회,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부 협의 완료(중) 했으며 중도위 심의 등을 거쳐 절차가 빠른 곳은 6월에 지구지정이 완료 될 것입니다.

○ 남양주 왕숙 등 2차 발표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 공람 중으로 이번 달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6월부터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등 공식 채널 이외 주민들과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최대한 재정착하고 정당보상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보상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<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도 신속히 추진, 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>

□ 기존 신도시 계획된 교통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'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('18.12.19)'에 따라 계양~강화 고속도로, 3호선 연장, 한강선 등 추가 교통대책도 지자체·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2기 신도시 교통실태조사를 5월에 착수하여 '20년 상반기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경제 등, '19. 5.9(목) >

◆ 3기 신도시 교통망...‘예타’까지 건너 뛴다

-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망인 고양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
- 전철 등 교통망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 위례 등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수현 사무관(☎ 044-201-444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